

#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83호

(본 잡지는 점자로 발행되고 있으며, 발행본 원고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3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안마 그리고 우리의 앞길은 / 조재훈(전 한빛맹학교 교장)

### 장애인계 뉴스

1. 한시련, '2012년도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사업자로 선정
2. 고 강영우 박사 별세...지난 4일 영결식 가져
3. 등록 시각장애인, 지난해 대비 1%정도 증가...전체 장애유형 중 4번째로 많아
4. 올해 12월 아날로그방송이 중단된다는데, 준비하고 계세요?  
-시각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디지털TV전환 정부 지원 실시
5. 시각장애가정 어린이들, 엄마·아빠 손잡고 딸기 따러 가요
6.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출판기념회 가져
7. 대구대, 시각장애 신입생을 위한 보행훈련 실시해
8.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

기획: 시각장애인도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

독자마당: 보이지 않아야 커지는 사랑(전국 특수교사 교육실천수기 공모대회 입선작) / 정혜현(포천선단초등학교 교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2월 16일~2월 29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51)

## 포커스

### 안마 그리고 우리의 앞길은

#### 조재훈(전 한빛맹학교 교장)

우리의 안마가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고 한다. 1945년 일제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찾은 것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다 더 잘 살게 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미 군정에 의하여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유사업법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과 함께 침·구·안마사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전쟁 승리국인 미국은 자기들의 권위를 위하여서도 서양의학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현대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았던 동양의학은 금지시켜 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직업을 잃은 뒤, 우리는 30여년의 투쟁 끝에 폐기되었던 법을 불과 몇 줄의 안마사에 대한 법 조항으로 되살리게 되었다.

안마는 1913년 제생원(조선시대 서민 의료기관-편집자 설명) 맹아부에서 시작될 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일제가 억압으로만 우리나라를 통치하기가 불가능하게 되니 소위 문화정책을 시행한다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책을 시도하려 한 것이다. 일본인들은 습한 기후 때문에 목욕과 더불어 안마를 즐기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점령지인 한국에 와보니 안마사가 없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필요도 충족시키고 가장 큰 동정의 대상이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인정도 베풀 수 있게,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를 하게 한 것은 참으로 1석 2조의 정책이 아닐 수 없었다.

8·15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퇴각한 뒤에는 안마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포기하지 않았다. 천신만고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일 것 같다. 시각장애인들이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기술을 계발하고 고객을 확보해 가며 성업을 이루어 나간 것이다. 그런데 돈이 될 만큼 안마를 키워놓으니 그 공로를 시각장애인들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몇 차례씩 끈질기게 제소를 하고 있다. 참으로 공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안마를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가정을 스스로 꾸미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부모 형제를 부양하고 자녀의 교육까지 책임질 수 있었다. 그리고 재력을 바탕으로 업체를 운영하여 기관장이 되고 학업성취도 이루게 되었다. 맹인하면 걸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시각장애인 자신이 사장과 관장을 비롯하여 학사·석사 그리고 박사가 되는 것은 물론 자식까지도 훌륭하게 사회에 진출시켜 국제적인 인물로도 키워낸바 있다. 그리하여 한 때는 한국 시각장애인들이 세계 장애인들 가운데 가장 잘 산다는 말까지 있었다.

가난은 나라도 모두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는 구미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복지는 각자가 자립할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의 상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 교사, 목사 같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안마가 유일한 직업이 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직업들은 모두 안마업과 안마사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안마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내년이면 우리나라에 안마가 도입된 지 만 100년이 된다. 50여년 전만 하여도 고드름이 달리는 안마피리를 불며 생계 때문에 겨울 밤 거리를 누비던 생각을 하면 참으로 격세지감

을 금할 수 없다. 그 당시 집 한 칸, 전화기 한 대가 없어 거리에서 추위에 떨던 현실을 악몽처럼 자꾸 떠올리게 된다. 급변하고 있는 세태에 안정감을 가질 수 없어서일까? 물론 그때의 험뵈고 굵주리던 모습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참혹했던 과거를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자칫 잘못하다가 다시 그 나라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포를 저버릴 수가 없다. 물론 그 최악의 상황은 머리에 떠올리기조차 불쾌한 일이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을 빼앗기게 되면 정말 끈 떨어진 뒤옹박이 될 것은 분명할 것 같다. 안마업을 완전히 탈취해 가지는 못하더라도 시기의 장·단은 미정이지만 직업평등권이란 명목 아래 정안인들과 경쟁을 하라고 할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과 정안인을 경쟁시키는 것은 마치 시각장애인 선수와 정안인 선수가 같이 경기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동안 무면허 마사지사들이 은밀하게 퇴폐영업을 하였던 것도 분명하지만 그 오명을 안마시술소가 거의 떠맡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 그렇다고 이러한 시시비비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어차피 정안인들과도 경쟁하여 승리해 나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단순한 노파심이라 할지 모르지만 안마에 대한 고초를 함께 겪은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안마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헤쳐 나갈 몇 가지 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첫째, 힘을 위주로 하던 것에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마를 하기로 한다. 지금 우리 신인 안마사들은 체력이 달려 정안인은 물론 주변국 마사지사들과 경쟁이 어렵다. 따라서 엄지를 주로하기보다 손과 팔 등 다른 부위를 병용하여 깊고 광범하게 풀어주는 것이다.

둘째, 위안 안마에서 치료 안마로 나간다. 그동안 선배들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디스크와 오십견 및 근육통은 물론 예민한 촉감을 장점으로 고결물을 풀어주어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셋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부위별 부분 안마를 비롯하여 산후조리원 같은 곳의 산부 안마를 개척해 나간다.

넷째, 다수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기 위하여 합작 형태의 대형 안마원을 발전시켜 나간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유행하는 발마사지 같은 것을 답습하지 말고 기계 안마기 같은 것을 활용하거나 저가이면서도 효율성 있는 우리만의 특성 있는 접촉술을 개척해 나간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안을 내어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업계의 지도자를 필두로 안마가 도입된 지 100년을 맞은 우리의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고 활성화시켜야 하겠다. 안마를 시각장애인의 것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변화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장애인계 뉴스

### 1. 한시련, '2012년도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사업자로 선정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2012년도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사업』에 공모한 결과 화면해설분야 사업자로 최종 선정 되었다.

『2012년도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사업』은 시각장애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등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적 효과가 있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물 50편을 화면해설 DVD로 제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각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 전국의 맹학교, 일반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욕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작품 선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자료(화면해설)의 품질보증을 위해 서비스 당사자인 시각장애인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제작 지침을 마련하고 오류가 발견될 경우 수정하여 제작할 계획이다.

제작 완료 된 DVD는 오는 12월 전국의 시각장애 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200여 곳에 배포된다.

### 2. 고 강영우 박사 별세...지난 4일 영결식 가져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고 강영우 박사가 2월 23일, 6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를 추모하기 위한 영결식이 3월 4일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센터빌에서 열렸으며, 유가족들과 윤순구 워싱턴D.C.총영사 등 500여명의 조문객들이 참석했다.

곳곳에서 추모글이 이어졌다. 미 백악관 장애정책 위원회도 공식 조서를 발표했으며, 강영우 박사를 고위직으로 발탁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우리 부부는 강 박사의 소천 소식에 크게 상심했다"면서 "우리의 기도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조전을 보내기도 했다.

윤순구 워싱턴 총영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전을 대독하며 "역경을 극복하고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한 고인의 숭고한 신념과 헌신은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고인 약력 순서를 진행한 차남인 진영 씨는 부친이 지난해 10월 최장암 판정을 받고 난 뒤 삶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고 강영우 박사는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한국인 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2년 백악관 국가장애위 정책차관보,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 루스벨트재단 고문 등을 역임했다.

### 3. 전국의 등록시각장애인, 지난해 대비 1%정도 증가...전체 장애유형 중 4번째로 많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12월말 기준 등록시각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등록

시각장애인은 지난해 249,259명보다 1,999명 늘어난 251,258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133만 3,429명), 청각장애(26만 1,067명), 뇌병변장애(26만 718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으며, 전체 등록 장애인은 251만 9,241명으로 지난해 251만 7,312명에 비해 1,929명이 늘어났다.

시각장애인 등록현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우선 등급별로는 6급 시각장애인이 161,5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급 33,510명, 5급(21,108명), 4급(13,834명), 3급(13,190명), 2급이 8,086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시각장애인이 150,130명, 여성이 101,128명으로, 남성 시각장애인이 여성 시각장애인에 비해 약 1.5배정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지난해 48,237명 보다 900명 늘어난 49,1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42,807명), 부산(18,245명), 경상북도(17,162명), 경상남도(16,991명), 전라남도(14,828명), 인천(13,218명), 충청남도(12,609명), 대구(12,247명), 전라북도(12,078명), 강원도(9,496명), 충청북도(8,966명), 광주(7,359명), 대전( 7,118명), 울산(4,788명), 제주(4,209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59,027명(23.5%)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고, 뒤이어 70대 53,300명(21.2%), 50대(49,837/19.8%), 40대 34,326명(13.7%), 30대 20,875명(8.3%), 80대 18,887명(7.5%), 90대 2,111명(0.8%), 10세 미만 1,006명(0.4%), 100세 이상 53명(0.02%)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70대 이상이 전체 70%이상을 차지했다.

#### **4. 올해 12월 아날로그방송이 중단된다는데, 준비하고 계세요?**

##### **-시각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디지털TV전환 정부 지원 실시**

디지털방송 전환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새벽4시에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된다.

현재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로 지상파 TV방송만을 시청하는 가구는 별도의 디지털 전환 준비를 하지 않으면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된다.(단 케이블TV, 위성방송(Skylife), IPTV 등 유료방송 가입가구는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TV를 시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상파 TV방송을 계속 시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TV에 디지털컨버터(아날로그 TV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와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디지털 TV로 교체하고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에서는 시각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지정 디지털TV 구매비용 10만원 지원 또는 디지털컨버터 1대 무상 지원, 디지털컨버터·안테나 설치 및 개·보수 무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디지털전환 콜센터(단축번호 124번, 연중무휴, 통화가능 시간: 9시~22시, 통화료 무료)를 통해 정부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료방송가입 가구 및 디지털TV 보유 가구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다.

② 거주 지역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정부지정 DTV 구매비용 10만원 지원' 또는 '디지털

털컨버터 1대 무상 지원'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신청한다. 디지털TV 구매 보조를 선택할 경우, 정부에서 정한 모델 중 하나를 택해야하며, 디지털TV 가격에서 정부지원금(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별도로 납부해야한다. 디지털TV 본인부담금은 모델별로 차이가 있다.

③ 디지털TV 또는 디지털컨버터 설치 기사가 가정에 방문해 이들 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디지털컨버터·안테나 설치 및 개·보수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늦게 신청할 경우 정부지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5. 시각장애가정 어린이들, 엄마·아빠 손잡고 딸기 따러 가요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이하 윈더풀)와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3월 17일(토)에 양평 수미마을에서 시각장애인 가정과 함께 2012년 첫번째 문화체험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농장에서 딸기 따기, 딸기인절미 만들기, 딸기찐빵 만들기, 트랙터 마차타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예정이며, 간식 및 식사, 특산품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체험의 추억을 되새길수 있도록 포토북을 제작하여 참가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며, 모든 비용은 윈더풀에서 전액 지원한다.

윈더풀은 그동안 시각장애대학생 장학금 후원,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 시각장애인가정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다방면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해왔으며, 이번 행사에는 시각장애인가정 총 12가정(40명)과 윈더풀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함께한다.

시각장애인가정 문화체험은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모집이 진행되었으며, 오는 4월 그리고 10월과 11월에도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 재활통신망 및 안내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유선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윈더풀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가정 문화체험은 2010년 처음 실시된 이래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야외문화활동에 소외되어 있던 시각장애인 가정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 6.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출판기념회 가져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지주회사)는 지난 3월 6일 '오디오북 출판기념회'를 서울 공평동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가 지난 해 11월부터 진행한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의 마지막 행사로,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부 받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목소리 재능 기부 캠페인이다.

전문 성우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콘테스트를 거쳐 100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이들은 성우들의 전문 낭독 교육을 받은 후 해설, 내레이션, 연기 파트 등으로 나누어 여행도서 <소도시 여행의 로망>의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인의 낭독 봉사자, 오디오북과 점자책 제작에 참여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임직원 200명, 피터 샌즈(Peter Sands)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회장 및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 낭독자 선발 및 교육을 진행한 30여 명의 유명 성우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는 총 1만 5천권의 오디오북과 점자책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기증했으며, 기증한 책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와 전국 시각장애특수학교 및 점자 도서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리차드 힐(Richard Hill)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은 “2010년부터 임직원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하던 낭독봉사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일반인과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희망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스탠다드차타드는 앞으로도 다양한 착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며 지역 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는 2003년부터 예방 가능한 실명 퇴치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인 ‘Seeing is Believing’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특히 2011년 9월 21일 뉴욕에서 열린 클린턴 세계구상 연차총회에서는 2020년까지 총 1억 달러 규모의 Seeing is Believing 성금을 모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7. 대구대, 시각장애 신입생을 위한 보행훈련 실시해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가 올해 시각장애 신입생 9명의 캠퍼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캠퍼스 보행훈련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시각장애 신입생들은 대구대 본관, 도서관, 기숙사,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대학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건물들을 직접 둘러보았다. 3월 2일부터 8일까지는 시각장애 선배들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캠퍼스 보행지도를 받았다.

대구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이번 훈련을 위해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보행훈련 전문가를 섭외했으며, 눈부심에 민감한 시각장애 학생을 배려해 훈련일정을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을 진행했다.

김영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새내기 학생들이 대학생이 됐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보행 훈련을 즐겁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에 뿌듯함을 느꼈다”며, “대구대는 보행훈련을 비롯해 100% 기숙사 입사, 점자·음성도서 학습자료 제공 등 시각장애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2000년 9월 전국 대학 최초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90여명의 장애학생들에게 장애영역별로 세분화된 학습지원, 생활지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8.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 가구 당 7~8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 1~2급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월세 거주하는 1~2급 장애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이다. 이중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선 선발된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천만 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천만 원 이내로 총 61억 원이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이 가능하다.

신청은 3월 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시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황인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최저 소득수준인데다 중증 장애가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라며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자격 및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청자격 (다음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 장애인)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이하)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소득조건 충족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및 체험홈(자립생활가정) 퇴소자

2) 지원 금액

-2인 이하 가구 : 1가구당 70백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 : 1가구당 80백만원 이하

3) 지원 가구수 : 81가구

4) 입주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5) 신청기간 : 2012. 3. 5~3. 16 (거주지 동주민센터)

6)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등

~~~~~

## 기획

### 시각장애인도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이다. 가깝게는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계에서는 2012장애인총선연대를 결성해 장애인 관련 공약을 개발하고 정당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2월 28일에는 새누리당 장애인비례대표 추천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기 위해 토론회와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애인계의 적극적인 활동은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계에서도 장애인 비례대표 추천후보자로 새누리당 전체 10명 중 2명, 민주당 전체 9명 중 3명이 명단에 올라있다. 등록 장애유형 중 시각장애가 4번째로 많은 것을 감안하면, 낮지 않은 비율이다. 그만큼 선거에 대한 시각장애인계의 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성한 권리와 의무인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이동권 문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투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일반 선거홍보지를 통해서 선거 후보자 개인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직선거법」은 장애인 선거권과 관련한 조항 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차별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선거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5대 권리에 속하는 참정권의 행사 과정에서 그간 장애인은 많은 차별을 받아 왔고 그 경험들은 장애차별로 진정된 바 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차례 장애차별 시정을 권고하였고 국회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동일한 내용으로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그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 자유 침해·점자 인쇄시설의 부족 등의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대책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통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확대, 장애인 투표 편의 확대 및 투표율 제고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국회의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것과 일반 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경우 부피가 세 배로 증가하는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한 면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을 삭제하여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결정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첫째,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작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제작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점자 인쇄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점자 인쇄 역량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설혹 관련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애인 보호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헌법」의 취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및 국회에 전달한 바 있으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심성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 권리 실현 차원으로,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이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첫째,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제작 배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둘째,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에 있어 일반 선거공보와 동등한 내용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점자 규격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넷째, 점자 이외의 다양한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접근성을 높여 시각장애인이 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독자마당

### 보이지 않아야 커지는 사랑(전국 특수교사 교육실천수기 공모대회 입선작)

#### 정예현(포천선단초등학교 교사)

한 달을 지내고, 내가 돌이켜본 시각장애학생 예은이는 본인이 가진 능력에 비해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초기의 나는 급식실에서 행어나 다칠세라 사지가 멀쩡한 아이를 자리에 앉혀놓고 그 앞에 식판을 가져다주고, 손가락에 반찬을 얹어주며 먹게 했었다. 치약을 짠 칫솔을 쥐어주며 칫솔질을 대신해줬다. 그러니 당연히 아이의 일상 생활기술들이 늘 틱이 없었다.

예은이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다행히 부모님께서도 예은이가 자립 능력을 키우는 것에 긍정적이셨다. 그렇게 예은이에 대한 고민과 변화의 움직임들이 시작되었다.

예은이는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손을 잡고 이동하는 것은 예은이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동행하고자 하는 습관이 예은이에게 평생 독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이제 서서히 손을 놓는 연습을 한다.

처음 흰 지팡이를 건넸을 때 예은이는 손으로 몇 번 만지더니 한쪽으로 휩 던져놓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데에만 몰두했다. 아이는 아직 지팡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었다. 등하굣길에는 집에서 통학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인의 손으로,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특수교사.. 때론 예은이의 양팔에 매달려 아기 다루듯 도와주는 반 친구들과까지 있으니 예은이는 늘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녔다. 그것이 더 빠르고 안전하므로 어느새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의식적으로 홀로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했다. 보조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지형지물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다. 늘 이동하는 3층 3학년교실에서 2층 민들레반까지는 혼자서도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옆에서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불안해했다. 뒤에서 늘 함께 걷다가 며칠은 떨어져 걷기를 반복했다. 그러기를 몇 주, 냉정한 특수 교사는 이제 예은이가 혼자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아이는 움츠러들었다.

잠시 서성이더니 마침내 아주 조금씩 발을 떼기 시작했다. 2층에서 3층으로 혼자 이동하는 것이 난생 처음이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뒤를 따랐다. 느리지만 침착한 발걸음으로 복도에서 계단으로, 계단에서 다시 복도로 걷고 있었다. 아뿔싸! 3층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였다. 오른쪽 벽을 따라 걸어야 했지만 계단 손잡이를 따라 무심코 왼쪽으로 걷고 있었다. 방향을 잘못 들어선 아이의 등을 보면서 달려가 손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이내 아이는 "어? 여기가 아니잖아."라며 혼잣말을 하더니 방향을 틀어 다시 자기반이 있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는 침착하게 방향을 찾아 이윽고 자기 반에 다다른 것이었다. 재빨리 달려가 덥석 품속에 안아주었다. 나의 체취와 온기가 느껴지는 찰나 아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속으로 꽤나 놀란 모양이다.

“예은아, 아주 잘했어! 혼자서 교실을 찾아왔네. 너무 멋지다!”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의 말을 해주었다. 아이는 금세 웃었고, 순식간에 한 뼘 더 자란 느낌이 들었다.

보행훈련은 특수교사인 나에게도 쉽지 않았다. 보행훈련에 관한 전공서적을 읽고 논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체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눈을 가리고 이동해보기 시

작했다. 안대를 끼자 당장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가린 것만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살 길은 모든 감각에 집중하는 일뿐이었다.

보행훈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은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 예은이의 기분을 헤아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이지 않는 예은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이 아닌, 스스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해야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더욱 ‘지팡이 훈련은 꼭 필요하다, 해야만 한다’가 아닌 스스로 필요성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해야했다.

동화 ‘지팡이의 여행’에서 힌트를 얻어 수업시간 전 교실에 장애물들을 배치하였다. 예은이에게 지팡이는 팔이 길게 늘어나 보물을 찾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교실을 여행하면서 그 안에 숨은 보물들을 지팡이의 느낌으로 찾아내도록 한 것이다. 지팡이를 잡은 예은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학습이 아닌 놀이로 친숙해지는 일에 받은 성공한 셈이었다.

교실에서의 보행에 자신감이 붙은 예은이와 복도 통행에 나섰다. 그러나 당장은 겁이 나는지 아이들이 간 후에 하길 원했던 예은이를 위해 방과 후 특수학급에서 통합학급 교실로, 보건실로, 학교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다. 여전히 실생활보다는 보행수업시간에만 지팡이를 활용하는 편이었지만 예은이 스스로 지팡이 보행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꼭 다행한 일이었다.

보행훈련이 익숙해질 무렵에도 여전히 일상 속의 예은이는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예은이가 보행훈련을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야했다. 통학을 도와주시는 활동보조원님과 특수교육보조원님께 냉정한 부탁을 드렸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예은이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은 아프지만 예은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

더불어 혼자 지팡이 보행으로 교실을 찾은 날이면 무한한 칭찬을 보냈다. 예은이가 점자에도 익숙해지면서 교실입구의 점자 이름표를 찾아내며 이동하는 대견함까지 보였다. 교실 문 앞에 다다르자 예은이 특유의 베시시 웃음을 보이며 “여기가 3학년2반이에요.” 하고 웃는 것이다.

함께 서 있으나 너무 가깝지 않은, 그러나 손을 뺄으면 닿을 곳에,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결국엔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로써 모든 것을 도와주고 해결하고 싶었던 처음의 욕심에서 벗어나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서서히 세상을 가능하게 지켜주는 일이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점심시간, 흰 지팡이를 들고 급식실로 향하는 예은이의 뒷모습을 보며,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님을, 보이지 않아야 더 커지는 사랑을 예은이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본다. 그리하여 혼자서도 굳건히 걸어가게 되기를...따뜻한 온기로 응시하고 싶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2월 16일~2월 29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2월 16일(목요일) 2012년도 전국장애인복지관장대회에 참석했으며, 다음 날인 17일(금요일)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20일(월요일)에는 한시련 정관개정회의를 주재했으며, 같은 날 보건복지부 장관 오찬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21일(화요일)에는 서울시사회복지단체 연대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한시련 정관개정위원회의를 주재했으며, 다음 날인 22일(수요일)에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 참석했다.

23일(목요일)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23회 이사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과 오찬을 함께 했으며, 24일(금요일)에는 제37기 안마수련원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27일(월요일)부터는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CSUN 2011(시각장애인보조기기 국제전시회 및 세미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갔다.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51)

### 1) '정말 딱하구만'과 '정말 딱하구먼' 중 맞는 것은?

-답: 정말 딱하구먼.

-해설: 말로 할 때 흔히 쓰는 말 중에는 표준어가 아닌 말들이 여럿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구, ~구만, ~구료, ~두'와 같은 말이다. 이들은 각각 '~하고, ~구먼, ~구려, ~도'로 써야 한다.

-예시

- (㉠) 정말 딱하구료 → 정말 딱하구려
- (㉡) 너는 밥하구 나는 청소하구 → 너는 밥하고 나는 청소하고
- (㉢) 네가 철수라구? → 네가 철수라고?
- (㉣) 훌륭하구만 → 훌륭하구먼
- (㉤) 철수는 집에 갔구요 → 철수는 집에 갔고요
- (㉥) 나두 너를 사랑해 → 나도 너를 사랑해

### 2) '점장이, 점쟁이' 중 어떤 말이 맞을까?

-답: 점쟁이

-해설: 표준어 규정에서는 기술자의 경우 '-장이'를, 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쟁이'를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구분만으로는 '점장이'인지 '점쟁이'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 점을 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이'는 수공업적인 기술자를 의미하며 그 외에는 '쟁이'를 쓰는 것을 감안하면, 점을 치는 사람은 점쟁이가 됨을 알 수 있다. '양복장이'와 '양복쟁이'의 경우 양복을 만드는 기술자는 '양복장이'가 되고, 양복만 자주 입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양복쟁이'가 된다.

-예시

- (㉠) 도배장이, 화초장이, 미장이
- (㉡) 멋쟁이, 점쟁이, 양복쟁이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2010년 제3판 발행본)」(태학사 제공)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